

표 12에서 ‘썸머킹’의 비정형과 발생률은 2.8% 정도로 지역별 차이가 없었다. 열과 발생률은 ‘썸머킹’은 거창읍 정장리가 2.2%, 고제면 봉계리가 1.2%이었다. ‘썸머킹’의 동녹 발생률은 고제면 봉계리가 4.0%, 거창읍 정장리는 1.3%이었다.

표 12. ‘썸머킹’ 품종의 생리장해 발생 정도

품종명	지역	연도	비정형과 (%)	열과 (%)	낙과 (%)	일소과 (%)	동녹 (%)	밀증상* (0-5)
썸머킹	거창읍 정장리	’14년	2.0	6.7	0.2	0	0.1	0.1
		’15년	4.3	0	0	0	2.6	0
		’16년	2.2	0	0	0	1.1	0
		<b>평균</b>	<b>2.8</b>	<b>2.2</b>	<b>0.1</b>	<b>0</b>	<b>1.3</b>	<b>0.1</b>
	고제면 봉계리	’14년	3.7	3.7	0.3	0	7.4	0
		’15년	2.0	0	0	0	2.0	0
		’16년	2.5	0	0	0	2.5	0
		<b>평균</b>	<b>2.7</b>	<b>1.2</b>	<b>0.1</b>	<b>0</b>	<b>4.0</b>	<b>0</b>
쓰가루 (대비)	거창읍 정장리	’14년	0	0	0	0	14.3	0.6
		’15년	0	0	0	0	6.7	0
		’16년	0	13.3	0	0	3.3	0
		<b>평균</b>	<b>0</b>	<b>4.4</b>	<b>0</b>	<b>0</b>	<b>8.1</b>	<b>0.2</b>
	고제면 봉계리	’14년	1.8	0	0	0	0	0
		’15년	2.0	0	0	0	6.0	0
		’16년	2.5	0	0	0	2.5	0
		<b>평균</b>	<b>2.1</b>	<b>0</b>	<b>0</b>	<b>0</b>	<b>2.8</b>	<b>0</b>

\* 밀증상 : 0(무), 1(1% 이하), 3(5% 이하), 5(25% 이하)

그림 1에서 ‘썸머킹’품종의 상품수량은 거창읍 정장리에서 2014년에 2,693kg/10a로 많았으나 2016년에는 인위적 수체조절로 감소하였으며, 고제면 봉계리에서는 2014년 696kg/10a로 적었으나 2016년에는 증가하였다. 지역별로는 거창읍 정장리가 고제면 봉계리에 비하여 상품수량이 많았다.